

<희망의 연못>에 동전을

넣으십시오 (보치 집행위원장)

올 3월에 개항한 함안고속리 위용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 중앙 엘리베이터 앞에 연못이 설치되어 있다. 항공사 승무원들이 하나 둘씩 동전을 넣으면서 행운을 빌라는 노릇이 되자마자 일반 승객들도 동참해 이전 <함안의 연못>으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이 연못에서 수거된 동전은 대주 월요일 어린이통계급(UNICEF)에 전달되어 세계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동안에 모여진 동전총액은 2314만 2310원이라고 한다. '더할 모의 더산'이라는 속담을 잘감치 한다.

이런저런 루머를 방불했던 사실들은 물론 '루머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본 사실들도 이따가 '사랑의 댐-애원'이라는 불수대를 기억할 것이다. 이 부분에 동전을 던지면 루머를 다시 방불하게 된다는 전설에 따라 여행객들도 여대생도 이 부분에 동전을 던지고 있다.

사람들의 행운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루머를 다시 방불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모여 더 뜻깊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거양득' 또는 '일석 2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12월 6일이 되면 우리네에 최초로 반등하기 위해 인간기금인 한국여성재단이 출범한다 2주년이 된다. 그동안 한국여성재단이 설치한 연못에서 8만여명의 뜻있는 사람들이 단돈의 위는 미래를 꿈꾸며 던진 70여억의 동전이 쌓여갔다. 2002년에는 그 기금의 열배인 300여44의 다양하고 의미있는 평생대상과 기부대상으로 세상에 반드나오는 지원하게 된다.

우리도 한국여성재단을 <희망의 연못>이라 부르며 동전을 던지는 소망을 <희망의 댐>이라 부르고 싶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에 의해 연못이 넘쳐나 풍요로움을 풍족하게 해줄 기대한다 재물이 자꾸 생겨서 아무리 새로 풍채 음모를 두고 '화수분'이라고 한다. 그것은 풍족의 반증상을 상징하며 생의 전설에 의한 것이다. 성별을 정하는데 필요한 물은 산양주에 설치한 무형에서 뱀아 산양에서 비롯된다. 그대들 통해 황금수를 길러다 붓게 했으며 그들의 저수탱크의 우리 를 활용한 것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한다.

한국여성재단이라는 큰 화수분은 우리 각각의 화수분에서 퍼낸 작은 큰 냇물로 채워진다. 이미 떠난 샘물이야 새로 퍼내기를 원하는 샘물들에게 사람들에게 화수를 주기 위해 우리의 화수분을 다사하는 베푸는 재력을 한다. 화수분은 퍼내지 퍼내지 물이 풍채 음모라고 하니 음모가!